

美 한국인 억류... 與 “초당적 협력 나서야” 국힘 “李 실용외교 실패”

與 “국힘, 정쟁 위한 억지 주장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 나서야”

국힘 “실컷 투자해 놓고 뒤통수... 외교 실패 책임 끝까지 묻겠다”

여야는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기업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인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주한미국대사조차 공식인 상황에서도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포된 우리 교민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영사 조력,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고용·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당국은 즉각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교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과 교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불과 11일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이며, 한국과 미국 제조업 동맹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며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주고 뒤통수 맞은 것이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700조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엄중히 주시하며,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백승아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미국의 한국인 체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기업이 투자한 미국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된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 사안”이라며 “정부와 외교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히



미국인민단속당국이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KCE홈페이지영상캡처

대응하고 있다. 국회 역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까지 연계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심지어 뒤통수 운운하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외교·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초당적

으로 지켜야 할 영역이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보수의 품격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억지 주장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총력 대응을 직접 지시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

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미 한국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이번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뉴시스

우원식 의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 K-컬처·민주주의 디딤돌”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광주를 방문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202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함께 관람하며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관람에는 우원식 의장과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안도길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비서실장, 윤범모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 최수신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이 함께했다.

전시관을 찾은 우 의장과 강 시장 전시 중인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 주제의 주요 콘텐츠를 함께 둘러봤다.

광주 방문해 강기정 시장과 비엔날레 동행 관람 “광주정신과 맞닿은 포용디자인, 세계 속으로 확장되길”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2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19개국 429명의 디자이너와 84개 기관이 참여해 포용적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다.

전시작으로는 육소와 스마트디자인의 포용디자인 35년의 여정, LG전자의 따뜻한 일상을 위한 디자인, 광주도시철도 포용디자인 프로젝트, 이(e)-모빌리티 모델

형 가전, 로보 보조 엄지손가락 ‘세 번째 엄지(Third Thumb)’, 고희자 돌봄 로봇 ‘래미(Rami)’ 등이 대표적이다. 전시 관람에 앞서 우 의장은 방명록에 “민주주의와 광주 정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세계로!”라는 글귀를 남겼다.

우원식 의장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인 포용디자인은 차별과 배제

가 아닌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광주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이번 비엔날레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속 K-컬처와 K-민주주의를 더욱 빛나게 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중국 전승절 방문 직후 곧바로 광주를 찾아준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지난 5월에는 금남로에서 광주정신을 함차게 외쳐주셨고, 오늘은 5·18의 기반이 된 광주의 문화예술을 공유해주셨다. 이번 전시에 담긴 광주의 포용정신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돼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병남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너는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202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찾아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李공약 ‘공공의대’ 시동... 내년 예산 39억 투입해 밑그림 그린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보건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나선다. 내년 예산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의대’ 연구를 한 후 설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의료 강화를 꾀한다는 목적이지만, 의료계에서 여전이 반대 기류가 거센 만큼 실제 추진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공의료 전문인력양성 및 지원’ 예산 39억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전문인력양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 등 예산 3억원과 실시 설계비 36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에는 편성되지 않은 신규 예산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으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천, 전남,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공공의료 대학을 설립한 후 입학생들의 등록금,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만약 입학 후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면 이미 지원 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공공병원이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취약지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필수요리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 의료 격차를 줄여 수도권과 대형 병원으로 집중된 의료 돌림 현상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의료 설립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도권과 인기 과목 집중 현상은

‘2026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 담겨 이 대통령,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주요 공약 연구 진행 예산 3억·실시 설계비 36억 등 포함 취약지 전문 의료인력 양성 예산 253% 증액돼

이번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련에 합격한 전공의는 총 7984명이다.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피·안·성·정’으로 불리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의 총원율은 9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은 여전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 총원율은 4.9%에 그쳤으며 소아청소년과 총원율은 8.0%에 머물렀다. 산부인과 역시 수도권 수련병원에는 전공의가 58.3% 돌아왔으나 비수도권은 27.6%만 총원됐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한 외과 전문의도 23.4%뿐이었다.

정부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예산을 포함, 취약지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52.5%(107억1400만원)나 증액한 149억5700만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10억3800만원), 시니어 의사 지원(72억2500만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27억9400만원) 등이 담겼다.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는 지역 필수요리를 살리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지역의사법은 지방

의대들이 별도의 입학 전형을 실시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는 게 핵심이다. 입학한 학생들은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의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 시행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 등 의사 단체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서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학계·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NGEF 2025

2025. 9. 17.(수)~18.(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조강연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2010 노벨물리학상



9.17.(수) 10:30

시민특강
과학분야 유튜브 1위 **과학을 보다**

M C I 정영진 프로
출연진 | 권석준 교수 | 김병준 교수 | 김성교 교수 | 우주먼지 지능배

9.17.(수) 18:00

주요 일정 안내

일정	프로그램
9.17.(수)	10:00 - 10:30 【내빈환담】 인사말씀, 퍼포먼스 등
	10:30 - 11:50 【기조강연】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대담 박진호 토크 총장직무대행)
	11:50 - 12:30 전시장 투어
9.18.(목)	14:00 - 16:00 【세션 1】 AI for Energy
	18:00 - 19:30 【시민특강】 유튜브 과학을 보다
	10:00 - 12:00 【세션 2】 e2i Square & Innovation
14:00 - 16:00 【세션 3】 Energy for AI	

주최 | 전라남도 Jeollanamdo | 나주시 NAMU CITY | KEN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주관 | 녹색에너지연구원 Green Energy Institute

특별파트너 | 흥선대학교 Hunsan University | 국립목포대학교 Mokpo National University | 전남대학교 Jeonnam National University | 후원 | 한국KONEX | 광주은행 Gwangju Bank | 한국에너지산업진흥원 Korea Energy Technology Assessment and Promotion Institute